

4월의 기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1. 조용기 총재 목사님께서 DCEM을 통한 해외 선교사역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용기 목사님의 건강을 살펴 주시옵소서.
2.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됨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허락해주소서.
3. 우리의 필요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4. 고난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5.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6.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구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예립, 이시은,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Imaobong, Lauren Roop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당신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에 사는 한 성도님의 딸이 신장염으로 몹시 고통을 당하였는데 매년 열리는 아세아성도방한대회에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의 사연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도가 자기 딸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아세아방한성도대회에 오려고 하는데 비행기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게다가 딸이 신장이 매우 나빠져서 5년이 넘도록 일주일에 두 번씩 투석을 받고 있었는데 요도염까지 심해져서 한국에 가면 죽을 것이라고 모두가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한국에 가면 반드시 낫는다는 메시지를 그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으니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한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홍콩으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몸이 아픈 딸과 함께 그 먼 길을 여행했으니 그 믿음의 결단이 참으로 대단하지요. 두 모녀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오는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비행기에서 성회 관계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오산리기도원에서 열린 성회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난 후,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서계시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그 딸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 성도님과 딸이 환경을 바라보고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니까 하나님께 그 딸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아야 가슴속에 소망을 품게 되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March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2011년 3월 홍콩 목회 지도자 세미나



조용기 목사 초청 홍콩 지도자 대성회가 지난 2011년 3월 1일 홍콩 마완섬에 위치한 노아의 방주(Noah's Ark Park of Hong Kong) 노아홀과 노아스타디움에서 동시에 열렸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열린 성회는 DCEM과 홍콩목회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가 후원했다.

홍콩은 국제 금융, 물류의 중심지로서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허브로 꼽힌다. 영국 식민지였던 영향 탓에 일찍부터 개방되어 동서양이 만나는 관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2011년 홍콩 성회는 조용기 목사가 홍콩순복음교회 새생전 입당예배 기념으로 참석하

면서 마련된 성회였는데, 조용기 목사의 홍콩 방문이 목회자들에게 알려지자 홍콩목회자연합회는 홍콩순복음교회측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조용기 목사가 인도하는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는 목회자 컨퍼런스가 알려지자 현지인들의 뜨거운 참여로 노아스타디움까지 개방됐고 3,000여 명이 모인 대성회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홍콩의 성령 충만의 열기가 대륙까지 이어져 중국의 복음화를 촉진시키며 홍콩이 중국대륙을 향한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귀한 성회였다.

홍콩지도자대성회에는 중국 대륙은 물론 대만과 싱가포르의 목회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들은 조용기 목사가 전하는 하

나님의 말씀을 빠짐 없이 듣고자 녹음기와 카메라까지 동원해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며 교회성장과 중국 대륙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중화권 목회자들의 조용기 목사에 대한 존경과 사모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회였다.

홍콩은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혼합 종교의 식과 낮은 복음화율로 현지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간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성회 이후 성령운동을 펼치는 교회들이 늘어나며 활발한 교회 성장을 이뤘고 있다.

홍콩과 중국 대륙의 복음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용기 목사의 선교 열정에 화답 받은 2011년 홍콩 성회를 되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기도로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앞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1-7절)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나와 화목 하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2.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

둘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나옵니다. 다윗은 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은 지상에 있었으나 마음은 하늘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자신의 장대한 키와 무게와 사내다움에 스스로 도취되어 자기 만족과 자신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취하여 있었으나, 골리앗은 자기 자랑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은 땅 위에서 삶에 만족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과 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차원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미터나 되는 거인이었고 다윗은 한낱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삼상 17:24)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도망칠 때,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대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3차원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윗은 4차원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라고 말했으니 바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차 될 것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될 것을 바라보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모든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평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불안함이나 공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평안과 인식과 기쁨만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제 두려움을 가졌는가 하면 범죄하고 하나님의 낫을 피해 동산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처음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 불안과 공포가 마음속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끊임 없이 죄와 마귀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에 쫓겨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할지,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길을 잃어버린 어린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불안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늘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쫓아 앞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 하나님께 기도하라

셋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라는 것은 난공불락의 성을 말합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요새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성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주신이가 그의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시 91:4)라고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가 모든 면에서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이 언제 평안이 다가올까?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험난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을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특집: 조용기 목사의 대륙별 해외성회 ⑤ 북아메리카 (II)



▲ 2006년 4월 LA 아주사백주년기념성회



▲ 2003년 3월 미북서부중보기도대회



▲ 2005년 미국 시애틀



▲ 2005년 5월 미국 CCCNY



▲ 2006년 4월 베데스다30주년 방문

미국을 중심으로 펼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북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선교 활동은 1964년 4월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중심의 초대교회적 인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조용기 목사의 선교 철학은 이미 기독교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북아메리카 대륙에도 큰 울림을 주었다.

조용기 목사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영혼들을 위해 직접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에서 나아가 미국 애너하임에 베데스다대학교를 설립해 북아메리카 대륙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학생과 선교사를 배출하며 교육을 통한 선교 성과를 거두었다.

조용기 목사는 한국에서 이미 성공한 목회자로 자리잡고 있었지만, 오대양 육대주를 무대 삼으며 한계가 없는 도전 정신으로 무

장해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기에 멀리 북아메리카의 영혼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줄 수 있었고, 성회 마다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입술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

조용기 목사의 대륙을 뛰어넘는 선교에 대한 노력은 2005년 미국 뉴욕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Churches of The City of New York)가 수여하는 ‘더 패밀리 오브 맨 메달리온’상을 수상하며 응답 받았다. 이 상은 세계 번영과 안정, 그리고 각 분야에서 타인의 추앙을 받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1963년 제정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첫 수상자가 된 이래 닉슨, 지미 카터 등 미국 역대 대통령들과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세운 록펠러 등 유명 경제인들이 수상한 권위 있는 상이다. 조용기 목사의 세계적 선

교사로서의 노력과 업적을 전세계인 앞에 인정 받은 의미 있는 수상이었다.

북아메리카 대륙은 전통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이 너무 익숙하게 삶 속에 자리하고 있었기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도 비춰졌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첫사랑을 회복해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기를 주장한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북아메리카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씨를 다시 피우며 더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게 했다.

우리의 신앙도 끝을 모르고 성장하던 성장기를 지나 성숙한 열매를 맺을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항상 첫사랑을 기억하고 전세계의 이웃에게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